



문리대 선거 후보 신문중 오보 정정

문리대 학생회 30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중에 신용우·조영욱 선거운동본부에서 배포한 두 번째 신문에 실은 내용 중 이학부에 대한 기사를 정정합니다.

11월 3일에 배포된 문리대 선거후보 신문의 4면에 있는 이학부의 기사내용에는 생물 실험중 식물실험이 시료가 없어서 실험이 일찍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실험이 일찍 끝난 이유는 동절기 실험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위가 오기전에 간단한 여러 테마를 몰아서 한 시간에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학부에 대한 자세한 실사없이 기사를 실은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학부생들과 함께 이학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욱
(수학과 3)

학생회실 난방기구 안전사고 위험

한 학생회실에 들른 나는 깜짝 놀랐다. 학생회실 중앙에 커다란 주전자와 올려진 버너위에 불이 켜져 켜고 있는 것이었다.

학생회실은 다 동아리방처럼 일정한 사람들만의 장소가 아니다. 각 단체 학생모두가 출입하는 매우 개방된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학생이 급히 들어갔다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다.

유치원생이나 초등 학생에게나 할 만한 걱정의 소리를 대학생들에게 한다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한다. 물론이다.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다녀라 하면 분명 나의 걱정은 노파심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식한다면 안전한 난방기구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열려 있는 학생회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열려 있는 학생회실은 원하지 않는다.

박전근
(사회과학부 1)

수원캠퍼스 배수시설 빠른시일내 정비필요

요즘 추축하게 가을을 적시는 비가 내리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남부지방에서는 가뭄해갈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엔 내린 비를 반가워 했다. 또한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오랜만에 내린 비로 낭만을 즐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

그러나 이번에 내린 비를 통해 수원캠퍼스의 배수시설을 지적하고자 한다. 곳곳에 가득 고인 빗물사이를 걸어야만 하는 어수룩한 양말이 젖어있곤 했다.

길바닥이 문제인지 아니면 배수시설이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학교당국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길 곳곳에 고인 물을 피하려고 침병침병 뛰어다니는 수는 없지 않은가!

비가 365일 1년내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장마철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아서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장마철 기록을 되새겨보면 그때 역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어 바지가 젖을 정도였다.

이제, 겨울이다. 그리고 봄이 올 것이다. 겨울내내 얼었던 얼음과 눈들이 봄볕에 녹아들어 우리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물바다로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배수시설을 잘 정비하여 내년의 아름다운 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 걸치장에 신경쓰는(?) 학교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가 되길 바란다.

정유화
(조형학부 1)

여학생 휴식공간 턱없이 부족

서원캠퍼스는 다른 타대학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학생의 비율만큼 그에 따르는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다.

예전에도 열린소리를 통해 지적 된 바가 있듯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여학생 화장실 수의 부족이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것 이전에 그나마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경희대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이 있다. 그러나 그 휴게실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문제는 있는 시설 자체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문리대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 복향이어서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난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여학생 화장실 몇군데에는 여성용품 자판기가 있지만 하지만 그 자판기들이 제대로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여학생들만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있는 시설마저도(‘미량’의 경우 의자들이 망가져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에 여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근화
(국문 3)

열린소리 참여안내

열린소리는 경희 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안·취재제보가 있으시면 학내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 통신 I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보낼곳 : 서울·수원 본사 편집실

하이텔(ID : khunews)
천리안(ID : khunews)

독자만화



“언제까지 반복되는가”

노회령
(행정 3)

독자수필

겨울에 대한 단상

심현석 (경제통상 1)

조겨울비가 소리없이 내리더니 아침엔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한점 없는 하늘이 고개를 내밀었다. 저렇게 파란 하늘엔 노란색, 붉은색 단풍잎이 무척이나 어울렸는데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파란 물에 담겨져있다. 그리고 겨울을 알리는 찬바람이 한 번 머릿결을 흔들린다.

낮게 깔린 햇빛하늘이 길가의 검은 흙탕물에 비친다. 코트 깃을 여미고 들어오는 바람은 막으려 목을 한창 움츠린다. 웅크리고 웅크리고 고개를 숙여 바람을 피한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잠시 지난해 겨울을 생각해보았다. 도대체 불꽃없는 하늘은 햇살을 가려 거리는 희색빛 차가운만이 땀만다. 웬지모를 공허함과 외로움이 더욱 가슴에 와 얼어붙는다.

어딘가 책에서보던 4계절을 통틀어 자살확률이 가장 높을 때가 겨울이라 한다. 그토록 절망적인 삶에 겨울이란 계절은 하나의 희망도 주지않아나.

겨울이 되면 느끼지않는가. 생생부는 바람속에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다는걸. 늦은 저녁 눈이 내리면 세상은 모두 침묵하고 달하얀나 쌓인 눈위로 홀로내리는 적막감...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도 기다려오고, 산타의 이야기와 성탄트리로 웬지모를 따스함과 가슴뿌듯함을 채우려나보다. 또 남을 돕는데서 느끼는 따스한 정과 ‘함께’라는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려고 겨울만 되면 종소리에 지갑을 열어 남비에 넣나보다.

겨울이란 계절은 혼자 겪어 나가기엔 이유없는 손해가 많은 밀리는 계절이다. 무엇보다도 방안에 웅크려 실버벨과 커피한잔으로 외로움을 즐기려나. 고독속에 의미의 찾는다는건 무서운 정도로 끔찍한 외로운 일이다.

자, 이제 무엇을 할까. 당장 졸업앨범을 펴고 그동안 잊고지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볼까? 아님 연락도 없이 무작정 친구네집을 한번 찾아가볼까? 집에 친구가 없어도 좋다. 그 친구를 위해 한 번 길에서 기다려주는 것도 좋겠다. 혼자 서서 겨울바람을 다 맞는다 해도 그때는 공허함과 외로움도 어느새 잊고있을 것이다.

朔風

누가 문화를 심판하는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정말 모르겠어...’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영화도 많은데 노래엔 욕하면 안되는지 왜 판매금지까지 되어하는지... 왜 학교에선 힙합 바지를 못입게 하는지 왜 다들하고 다니는 귀걸이를 가수들이하면 방송금지까지 당해야 하는지... 아줌마들은 특하면 방송국에 전화해 콜라나 팔라라 하는지 아줌마들 왜들 그러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DJ.DOC의 ‘모르겠어?’란 노랫말의 일부이다. 세태를 꼬집은 재미있는 노랫말이 가워질되지 않고 버젓이 앨범에 수록된 것을 보면 가로막기 일변도의 우리 음악계도 상당히 양호해졌다.

한 10대 가수가 판소리의 욕은 괜찮고 왜 자기들 노래의 비속어는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사실 판소리나 고전이 모두 고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판소리와 구전되는 이야기들은 옛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걸쭉한 욕설과 농도 짙은 음담패설이

많고, ‘테카메론’, ‘아라비아 나이트’, ‘보바리 부인’, ‘고금소총’, ‘춘향전’ 같은 책들도 포르노 뽀치는 음란한 성애묘사를 싣고 있다. 또한 영화 ‘겨울여자’의 ‘이화’라는 인물도 지금은 별다른 감회가 없으나 당시에는 성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판소리와 소설과 영화가 대중지향의 최첨단 장르였던 시대의 이야기다. 요즘의, 사이버문화에서 만나는 외설과 폭력은 그것이 첨단 매체이기 때문일지도 모르며 그런것들도 시대가 바뀌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맥루한의 말대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흘러간 매체는 어느 틈에 근엄한 얼굴로 고전이 되는가 보다. 농민들이 즐기던 판소리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풍미하는 요즘에 고전으로 인정받고, 환자 기술이 발전하여 소설이 자리를 잡자 희곡 배우들이나 서사극을 구연하던 시인들이 고전의 수호자가 되고, 영화 등 영상매체가 발전한 즈음엔 활자 매체인 시나 소설은 고상한 사

람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되었다. 판소리, 사물놀이, 살풀이, 무성영화, 굿춤 등이 당시에 인정받는 고상한 장르였을까.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겠지만 그보다는 반감을 사기도 하고 홀대를 받기도 했을 것이다. 다만 생명력을 갖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흡수된 것만이 ‘정통성’ 있는 전통’이라는 면류관을 쓰게 되었다.

어느 시대나나 상식을 뛰어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훗날 더 주목을 받은 경우가 많다. 요즘 판치는 혹은 지향적 문화는 과연 다음세대에서 고전 대접을 받을지 궁금하다. 혹은 문화 그대로의 모방이 아니고 우리에게 흡수되어 한국화 된다면 아마도 한국음악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 땅에서는 앞으로 탄압받는 문화가 없길 기대한다. 싸구려전, 고급이건 탄압을 받아 축소되던 회소가치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본질 이상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지나친 탄압은 ‘문화 순교자’를 만들 뿐이다. (洪海)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작은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엮습니다.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 경희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7.11.17~11.21)

△박규홍(수원C 부총장, 회계학과교수, 1차분)	2백만원
△정진현(약학과 교수)	2백만원
△김창권(한의6회, 한의대동문회장)	냉장고 1대 기증
△간호학과 발전기금(6천6백97만원)	
-한상숙(간호2회)	2백만원
-김영순(간호2회)	1백만원
-김복순(간호6회)	50만원
-조옥순(간호6회)	30만원
-김상숙(간호14회)	10만원
-장명숙(간호1회)	50만원
-김순규(간호6회)	5만원
-구경희(간호17회)	50만원
-손인아(간호8회)	1백만원
-이연숙(간호7회)	50만원

-문선희(간호6회)	1백50만원
-고정주(간호7회)	5만원
-백미정(간호21회)	20만원
-나성숙(간호6회)	50만원
-김혜순(간호23회)	20만원
-여경숙(간호7회)	10만원
-손영주(간호3회)	1백만원
-서석순(간호13회)	50만원
-최진아(간호10회)	1백80만원
-인소영(간호18회)	30만원
-조선희(간호19회)	4만원
-임향란(간호24회)	10만원
-전현숙(간호7회)	10만원
-이정인(간호5회)	80만원
-배영숙(간호3회)	1백만원
-오미정(간호15회)	50만원
-이향련(의대 간호학과)	3백만원
-정연(박사과정)	20만원
-이미애(박사과정)	50만원
-석소현(의대 간호학과 조교)	10만원
-유재희(경기간접교수, 박사과정)	5백만원

PAGODA

개강
12월 1일
한정접수중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98년도 파고다 English 달력을 수강생 여러분께 드립니다

미국인 영어회화
SLE(개별 12명/1월 1시간/1반 완성)
집중영어 회화(1월 5시간/2시간)
일본어
기초 일본어(문법 특예) 3달 완성
일본인 회화(10달 완성)

영어
기초 영어회화
TOEIC·TOEFL·G-TELP
GRE·AFKN
READING·WRITING
L.C.(정위력 특별과정)
유학·진학·취업영어
※ 석사 이상의 한국인 강사진

NEW 최신 프로그램
대학영어 영어(종로, 신촌)
통신영어 강좌(Tel 777-4401)
전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영어·독어·불어
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

http://www.pagodaac.com/

상담문의

종로 (02)274-4000 신촌 (02)717-4000 강남 (02)501-4002
입구정 (02)3442-4000 부산서면 (051)802-5001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가장 안정된 직업

최강의 교수진

7·9급 공무원

개강 : 매월 1일
— 매일 아침 무료특강 07:30~08:30
— 매주 마지막 주 일요일 모의고사 실시

법원·검찰
전문강좌

명강좌

최종 점검반 운영 정규 이론반
개강: 12월 1일 (60일 완성)
(순환식) 계속강의

공지사항

7·9급 공무원 대상

장학생 선발 시험

12월 14일(일) 실시

— 자세한 사항은 학원문의 요망

— GROUP STUDY 모집중

감정평가사(1·2차) 수험생은

누구나 응시가능 (시험 12월 21일)

최강의 단과 교수진

김재정 교수	국 어	이영철 교수	한 국 사
유우연 교수	종합영어	신홍섭 교수	생물(공생)영어
주정환 교수	아카데미 TOEFL	허홍석 교수	회계원리
조병욱 교수	민법총칙	김당현 교수	헌 법
조충환 교수	형 법	조영석 교수	행 정 법
김동현 교수	행정학	이양수 교수	형사소송법
장세석 교수	교정학	곽구열 교수	국 제 법

진기명 교수팀

감정평가사

1·2차 기본 이론반

개강: 매월 1일

· 토지수용법·임형육 변호사

· 원가회계·국제 경제학 특강

「전국 최다 합격의 신화가 이어집니다」

진기명 교수 **경제학** 개강 12월 1일

법무사반 1월 개강

경찰 간부직 문제 풀이반

남·여 경찰직 시험

각종 시험 준비생 문의 요망

장애학생 수강료 50% 할인

수험가의 선두주자

남 부 행 정 고 시 학 원

(02)815-7819/7839